

이웃

[잇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vol. 04

2018.12 | 원고개 마을소식지



원고개 픽(PICK)

(취재-박미경)

우리동네의 서쪽에 동물벽화가 있다면 동쪽에는 아침햇살 받으며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또 다른 멋진 벽화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비산지하도 옆 벽화를 소개할까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붓을 잡다니~” 나의 꿈을 찾아가면서 마을에는 벽화를 남기는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벽화를 그리면서 골목에는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묻어나며 한동안 동심의 세계에 빠져있었다지요. 우리 마을에 생긴 멋진 도서관 가는 길에 잠깐 들러 한 컷 하시길 추천합니다.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이야기

(취재-우화주)

2018년 12월 20일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 주민조직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대표로 원고개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발표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 원고개마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소한 마을살이의 재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1년의 성과물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한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더 즐거운 일들과 마을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월간 원고개

8월



8월20일~10월15일

원고개마을 업사이클링 공예교실



8월31일~9월21일

원고개마을 뜨개방



11월14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



11월2일

2018 하반기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11월15일~12월24일

마을소식지 편집팀 운영

2018 원고개마을 축제
(플리마켓/음악회)

12월1일

12월





마을 외국인과 함께하는
생활영어교실

9월5일~11월7일

원고개마을 정원사
양성교육

9월6일~11월15일

9월



원고개마을 벽화장인
양성교육

9월11일~11월27일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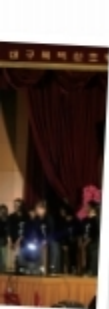


2018 도시재생 주민조직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12월20일

동네부엌/나눔마당

12월20일



원고개마을 동아리 우쿠렐레 연주팀 하우올리

(인터뷰어-구본녀)



Q. 우쿠렐레 팀 이름이 있나요?

A. 하우올리인데 Hau'oli 는 하와이 언어로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우쿠렐레 연주를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Q. 동아리결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A. 2017년 북비산 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되면서 학부모교육 일환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모10명으로 구성이 된 모임인데 다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서 너무 신나게 수업하고있고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Q. 학부모 모임인데 아이가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다들 계속하고 싶기는한데 아이가 졸업을 하게되면 못할수도 있을것같아요. 또 다른 학부모 신청자를 모집해서 새로이 결성이 될 것 같아서 아쉽기도해요 혹시 지금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까지는 계속할 수 있을것 같기도하구요ㅎㅎ

Q. 악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동아리활동을 계속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A. 아직은 다들 실력들이 비슷해서 리더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리더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거나 지금 선생님께 수업을 계속 받을수 있다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다들 흥도 많고 끼도 많은 사람들이라서요---

Q. 우쿠렐레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요?

A. 생소한 악기이기도하고 악기를 접해볼 기회가 없다보니 다들 어색하기도하고 배우려고 하니 줄 잡는 것도 힘들고 뭐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래도 서로 모여서 매일 연습하다보니 힘든 것 보다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Q. 우쿠렐레팀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A. 아직은 학교에서 교내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활동이 끝나서 다른 일정은 없어요-- 새학기에 다시 활동이 시작 될 거예요 다른 팀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데 시간이 된다면 우쿠렐레팀도 마을경로당 봉사활동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Q. 공연의상이 화려하던데 입는데 부담감이 없었는가요?

A. 서로의견을 모아서 확정을 하고 구입을 하였고요, 처음 의상을 입었을때는 살짝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과감하게 도전을 하긴하였는데 화려한 옷을 입을 일이 없다보니 무대에 서려니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구요. 막상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데 다들 보고 예쁘다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다음의상은 좀더 과감하게 도전한번 해볼려구요----호호호

Q. 소품이나 의상구입은 어떻게하는지?

A. 의상비는 각자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소품은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행사때만 착용하고 행사후에는 학교에 반납하고있어요 소품은 아이들도 선생님도 함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악단에서 여유가 된다면 다음 공연때 구입해주시면 좋겠어요---

Q. 원고개음악단 활동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A. 음악단 참여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였어요. 불러만 주시면 계속함께 하고싶는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동아리 참여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음악단에는 참여 하고싶어요 모여서 연습하고 의상준비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였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다시 오겠어요----

Q. 음악단공연하면서 다른 악기를 꼭 배우고 싶은 게 있었나요?

A. 기회가 된다면 카혼을 꼭 배워보고 싶어요. 다들 흥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공연내내 무대밑에서 춤추다가 무대에 뛰어올라 갈 뻔 했어요 음악단 공연 때 악기를 두드리며 붐바스틱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악기는 물론 춤도 욕심났어요--- 다음 수업때 꼭 불러주세요---ㅎㅎㅎ

Q. 마지막으로 우쿠렐레팀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요?

A. 우쿠렐레팀들은 흥 많고 끼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 확실하구요 다음에 들어오는 학모들도 흥이 많은 분들이 오실거라 생각하구요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원고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다락방에서 자주만나고 모임은 꼭 계속 될 것 같아요

****인터뷰어 후기-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분이 업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였습니다.
흥이 많고 끼도 많고 재능까지 많은 하우올레팀 파이팅입니다^^**

원고개마을 Star

‘정복순’씨를 만나다

(인터뷰어-박옥선)

Q. 우리마을에서 어떤일을 하고 계시나요?

A.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무국장,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주민예산 참여 시민위원, 자연보호 회원, 기타동아리 비행기, 원고개 협동조합 사무국장, 통장직을 맡고있으면서 적십자 봉사활동을하고 있습니다.

Q. 말씨가 대구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대구에서 살게 되셨나요?

A. 이해심이 많고 인물도 좋으면서 멋진 우리 신랑한테 반해서 결혼을 하고 대구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

Q. 마을일 활동을 하시는데 집에서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A. 처음에는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더 잘하라고 응원도 해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조금 걱정이 됐나봐요. 현재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더 충실히 해줬음 하는 바램을 가지더라고요. ㅎㅎ 그래도 저는 계속 더하고 싶네요^^

Q. 기타동아리 비행기팀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A. 홍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팀이 단합이 잘 될수 있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무국장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요?

A.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같은 입장의 엄마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있을지 의논도 하고, 모임도 하고, 기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Q. 마을에서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현재 하고 있는 마을활동이나 봉사활동 모두 즐기면서 재미있게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 원고개 마을이 2017년 ~ 2020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도시재생 현장 견학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마을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될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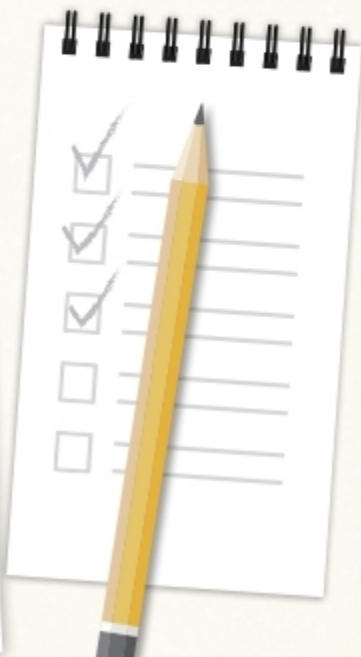
Q. 정복순씨에게 '원고개 다락방'이란 무엇인가요?

A. 소통의공간, 비타민 같은 활력소, 휴식처, 사랑방같은 소중한 공간이면서 행복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이유는 다락방에 안오면 하루가 시작이 안되고...다락방은 항상 지나가고 거쳐야되고 또,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이 꼭 왔다가야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수다를 떨수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Q. 마지막으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바라는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의 협조가 잘됐으면 싶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교육나눔을 같이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보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될 할 수 있는지 될 하고 싶어하는지 파악해서 내년엔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정복순씨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슴떨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우화주

수제청 만들기 원고개 다락방의 건강음료 만들기 프로젝트!

생강, 레몬, 자몽을 뽀드득 소리나게 씻고 껍질을 까서 말리고~다락방 바리스타들의 분주한 손길 덕분에 보기에에도 예쁜 수제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건강을 지켜줄 수제차 맛보러 오세요.



구본녀

북비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화분텃밭에** 농사를 지은 무와 배추를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드렸다고 하네요~~~~



조은정

12월20일목요일 **만두빚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주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두를 만들어 드시기도하고 이웃과도 나누었습니다. 다들 즐겁고 배도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사였습니다.



구본녀

12월19일수요일 늦은저녁 8시에 원고개다락방에서 **바리스타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일년동안 고생한 서로에게 선물 증정식도 가지며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개 음악단 원고개 플리마켓

(취재-성인화)

12월의 첫날, 북비산 초등학교 강당에서 '원고개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1부 플리마켓과 2부 음악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강당 입구에서 먹거리 장터가 한창이었다. 오텁 국물이 맛있어보였다. 플리마켓은 판매부스와 무료체험부스로 구성되어있었다. 판매부스에서는 옷, 악세사리, 천연비누, 양초, 잡화, 반찬, 도서, 커피 등을 팔았다. 눈길을 끄는 옷도 보였고, 탐나는 잡화도 많았다. 무료체험부스도 북적였다.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전통놀이와 페이스페인팅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블록 마당의 인기가 가장 좋았다. 한 아이는 블록을 이어서 키를 넘는 탑을 쌓기도 했다.

사물놀이를 단초로 음악회가 시작됐다. 익숙한 리듬의 라테츠키 행진곡이 에피타이저로 맞춤이었다. 우쿠렐레, 플룻, 카혼, 기타, 남성중창단, 전체합주까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 관객의 호응 또한 인상 깊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 관장님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팬클럽인 줄 알았다. 앵콜 공연도 있었는데, '안동역에서'가 나오자 누구 할 것 없이 어울렸다. 그 장면은 보기만 해도 행복했다.

이런 축제를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노력들에 감사드리며, 아직 '강당이 넓은 아이들'이 마을에서의 이 기억을 오래 간직하면 좋겠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소식

우리마을 교육나눔
리틀소시움 체험
(취재-문명경)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
(취재-조은정)

하이!! 리쏘~11월 24일~~

네 꿈을 찾아라!! 주제에 맞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며 꿈을 찾아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열정을 만났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도 느끼며 앞으로 우리 마을 교육나눔의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들과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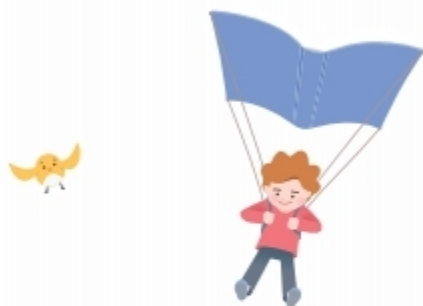
11월14일 수요일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 열아홉가정과 우리마을교육나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바쁜 일정에도 각 나라의 고유음식을 만들어와서 서로 맛보기도 하고 각 나라의 전통의상과 전통놀이도 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음식과 문화 언어도 모두가 다르고 타국에서 고국의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파티를 마무리 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엄마들과 자녀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준비한 마을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소통의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고개마을
생활영어
(취재-구본녀)



영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아요~~
소통/ Go~Go! We Are One! 마릴루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공항에서 ~ 식당에서 ~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

첫 수업부터 영어로만 진행된 수업에 조금은 당황한 아이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각자 소개를 하고 닉네임도 정하고 필리핀 전통의상
체험도 해보고 제기차기도 하고... 다음수업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면
좋을지 의견도내고...

말은 잘 안통해도 눈치껏 대화하며 까르르 깔깔 호호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활기찬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혀서 당황부터 하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원어민선생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 정말 빠르게 적응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수업에는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도서, 장난감을 가지고와서 벼룩시장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하반기
수업에는 한층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명의 결석자도 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스스로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할로윈 파티를 마지막으로 수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은 방송국에서 촬영도와서 인터뷰도하고
마을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수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



마을사람 이야기

비산1동장 김영진 (취재-임미영)



비산 1동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마을이다.

10여년동안 비산 1동 거주하다가 장모님의 입원으로 불가피하게 경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사무관 승진도했고 보건과장에서 비산1동으로의 발령 등 좋은 기억과 인연이 있어 여러모로 감사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할 때만 해도 비산 1동이 인근 염색공단 쇠퇴로 인구가 유출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선, 구 원현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을 하는 원고개 다락방이 생겨나면서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비산성당을 역사와 문화를 담은 조형물과 벽화로 꾸며 마을의 가치를 드높였으며 빈집이나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해서 안전한 먹거리도 생산하고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동네 주민들의 애정과 진심어린 노력으로 변화하는 비산 1동의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동장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많이 연구하면서 이 마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원고개마을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편집후기



구본녀

모임을 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회의도하고 의견도내고 내가 알지 못한 마을이야기도 알게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좋은 추억이 또하나 생겼다



문명경

두번째 참가한 원고개 마을 소식지 만들기~ 처음과는 달리 척척 해 나가는 우리 편집팀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원고개 마을 소식지 편집팀 화이팅~!!!!



박미경

예전과 확실히 다르게 우리 주민이 인상이 밝아졌어요. 정이 묻어나는 비산1동이 너무 좋아요.



조은정

책을 만들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니 우리마을이 예쁘게 많이 변해 있어서 널리 알리고 싶어지네요~~



박옥선

처음 접하는거라 내가 과연 무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인터뷰를 하면서 잠시나마 내가 기자가 된 것 같이 기분이 참 묘하면서 가슴 설레고 넘 뿌듯했어용~^^ㅋ



우화주

2018년 하반기도 원고개마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정리를 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기록의 중요성,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임미영

우리마을 편집팀에 합류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있네요. 요즘 우리 동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즐겁고 뿌듯합니다





희망 원(ONE)고개마을 소식지